



중국 초대형 경제허브,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홍콩지사

홍콩-마카오-광둥성, 1일 생활권 구축

• 지난 해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주아오(港珠澳) 대교 개통식을 위해 광둥성 주하이(珠海)를 찾았다. 강주아오 다리는 홍콩-마카오-주하이를 잇는 총 길이 55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다. 이 다리의 개통으로 3시간이 걸리던 홍콩-마카오 육로 이동시간은 4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 이로써 작년 9월부터 운행한 홍콩-선전-광저우 광선강 고속철도¹⁾와 함께 홍콩-마카오-광둥성 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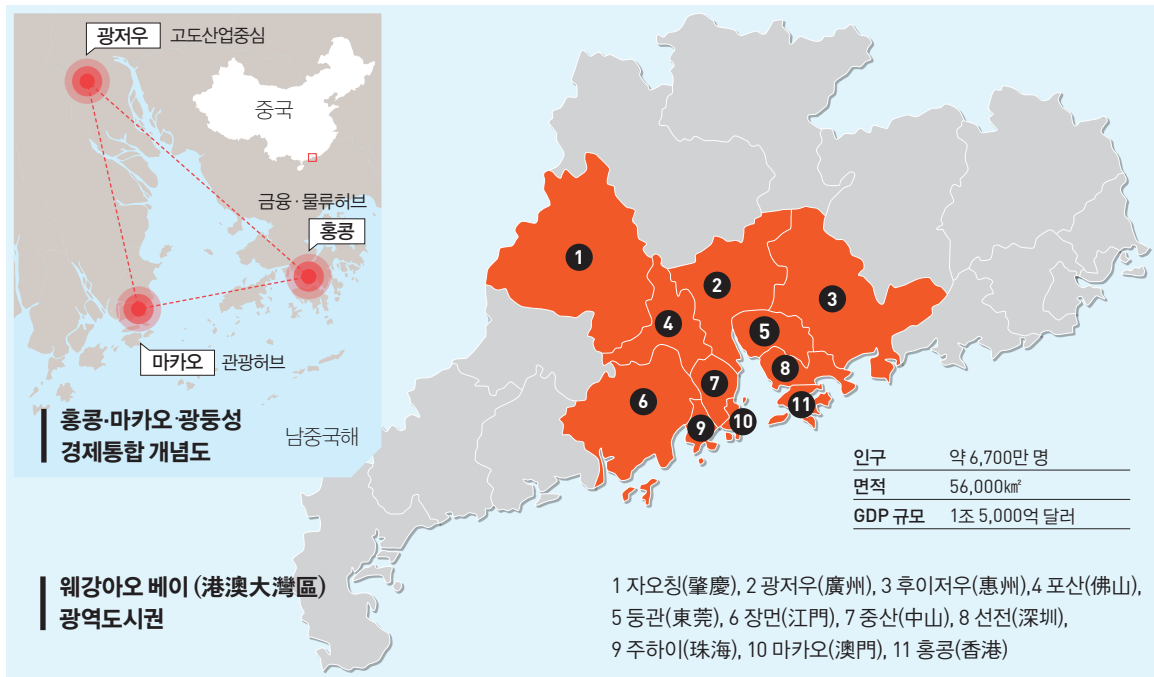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시대의 서막

•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 정부는 웨강아오 대만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었지만 낙후된 육로 인프라 때문에 쉽지 않았다. 홍콩과 마카오는 페리로는 1시간이 걸리지만 육로를 이용하면 3시간이 걸려 지역 간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주아오 대교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다를 가로질러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단번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1) 광선강 고속철도 : 홍콩-선전-광저우를 연결하는 고속철. 당초 2시간 45분이던 홍콩-광저우 구간을 45분만에 연결하며(홍콩-심천 14분, 심천-광저우 30분), 베이징, 상하이, 서안, 샤먼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함

2) 광둥성 9개 도시 :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중산(中山), 선전(深圳), 포산(佛山), 후이저우(惠州), 장먼(江門), 자오칭(肇慶)



• 웨강아오 대만구는 홍콩, 마카오와 광둥성 9개 도시²⁾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중국은 강주아오 대교의 개통으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도시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콩의 금융·무역서비스업과 마카오의 관광·레저산업, 선전과 광저우의 첨단 제조업·IT산업의 지역간 자본,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세계 최대 경제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장에서 시장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의 등장

•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주강 삼각주 경제권역으로 특히 중국 1선 도시인 광저우, 심천을 비롯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포산, 둥관, 장먼 등 전 세계 기업들의 제조공장, 하이테크산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또한 중국에서 최상위 수준의 경제력과 홍콩과 인접해 있어 대외 교류가 활발한 지역으로 소비자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우리 농식품 수

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도쿄 등 세계 3대 베이에 필적할 만한 자원, 경제규모, 입지적 강점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기준 웨강아오 대만구의 총인구는 6,700만 명, GDP 1조 5000억 달러(약 1,695조 원)로 한국과 맞먹는 수준이다(대한민국 : 인구 5,180만 명, 1조 5,300달러). 중국은 2030년 웨강아오 대만구의 GDP가 세계 3대 베이를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거대 소비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홍콩 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중국 수출을 계획하는 수출업체는 향후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웨강아오 대만구를 주목하고, 진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